

사경이라고 하면 흔히 경전을 필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까지 책을 편찬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서양에서는 성경을, 중동에서는 코란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불교경전을 붓으로 옮겨 적어왔던 것이다.

한국사경연구회 & 김경호 회장

고려 사경의

한국사경연구회를 찾아 갔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벽을 둘러싸고 있는 책장에 가득한 책들이었다. 그 서적의 양만으로도 '사경'이라는 분야가 단순히 글과 그림을 옮겨 적는 작업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었다. 거기에 꽂혀진 책들은 불교서적은 물론이고, 한문, 미술사, 회화, 서예, 고려사 등 다양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책들이 유리벽 안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한 권한권 꺼내보기 쉽도록 되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책들은 귀퉁이가 모두 닳아있었다는 것이다. 고려시대 이후로 맥이 끊겨 버리다시피 한 사경을 다시 발견하기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연구를 거듭했는지 보여주는 것 같았다.

성인들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의 방식, 사경

사경(寫經)의 寫는 '베끼다, 옮겨놓다. 본뜨다, 그리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성인이 지은 책을 옮겨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경은 단순히 그 모습을 흉내 내는 것이 아니라, 작가에 의해서 재창조되는 것에 가깝다. 복사의 의미보다는 리메이크인 것이다. 그래서 성인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그 글씨체와 분위기는 작가에 따라서 모두 다르다.

과거에는 성인들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성인의 말씀을 기억해 두었다가 한자 한자 문자로 남겼다. 거기에는 시간과 공간적인 한계를 넘어 전달되고자 하

또한 이는 과거에는 필요에 의해서, 또는 수행의 한 방법으로 발전했지만, 지금은 하나의 예술 활동으로 인정받고 있다. 한국사경연구회는 '고려사경'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모두가 그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돕는다.

아름다움을 찾다

는 마음이 들어가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화려하고, 장엄해졌다. 고려시대에 꽃을 피운 '사경'은 그 당시 중국과 일본에서 조차 전문가를 초청할 정도였다고 한다.

사경, 인쇄술의 발명 기초가 되다

사경은 문화를 꽃피웠던 고려시대 후반에 이르러 한순간 쇠퇴했다. 다름 아닌 인쇄술의 발명 때문이었다.

당시 탑을 세울 때에는 불교경전을 함께 탑 안에 봉안하도록 했는데, 이전까지는 모두 직접 손으로 쓴 경전을 넣었다. 이런 이유로 사경은 그야말로 한 시대를 누렸으나, 불교가 더욱 융성하면서 탑의 수가 늘어나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불교경전에 대한 수요도 크게 늘었다. 그런데 기존 인력으로는 이를 대체할 수 없었다. 당시 한문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고, 또 글자를 잘 쓰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늘어난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목판인쇄가 발명됐고, 이후로는 목판인쇄물이 사경의 많은 부분을 대신하게 되었다. 당시 탑들의 사리함에서 '다라니경'이 발견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김경호 회장은 인쇄술이야말로, 우리나라 사경의 가치를 한 번 더 깨닫게 해 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인쇄술이 발전하기 전에는 문자에 대한 수준 높은 이해가 우선하기 때문이다. 인쇄활자를 만들기 위해서 쓰였던 많은 글들이 모두 사경이었다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인 터 부
김 경 호
회 장

동양의 문화가 그대로 담겨있는 경전 그 의미를 재발견하는 '사경'

'사경'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어린 시절 아버님께서 서예를 하셨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붓을 잡게 되었는데, 획을 그을 때마다 전해오는 붓의 탄력에 크게 매료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시절 토요일, 일요일은 방에서 글을 쓰면서 보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후 1년 동안 글을 배우기 위해 이곳저곳으로 스승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를 보내면서 불교문화에 심취했습니다. 그렇게 '사경'을 알게 되었습니다.

독특한 어린 시절을 보내셨는데요,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신가요?

고등학교 때 출가하려고 집을 몰래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토굴 같은 암자에서 명상하고 있었고, 그때 꿈이었던지 아버님이 저를 데리러 왔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다음날 같은 시간에 같은 모습을 한 아버님이 토굴에 숨어 있는 저를 찾으러 온 거였습니다. 그때 '아, 인연이 여기까지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내려왔던 적이 있습니다.

'사경'이 쉽지 않은 일인데요, 특히 도움이 주신 분이 계신가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동국대 장홍식 박물관장님이 생각합니다. 그분은 삼국시대 사경에서부터, 고려시대 사경에 나타나는

어떤 흐름과 분위기까지 꿰고 있던 석학이셨습니다. 그분이 제 작품을 보곤 날카로운 시선으로 잘잘못을 말해주셨기에 제가 지금까지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장홍식 선생님은 저를 알아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사경'을 알리는데 주력했지만, 이제는 '사경'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 중점을 둘 생각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해 일반인들도 쉽게 사경을 접하고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그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다면

'사경'은 인쇄술이 발달되기 전에 경전을 옮기는 방식이었습니다. 경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좀 더 화려하고, 장식적인 아름다움을 갖게 되었고, 그것이 예술로 진화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편견없이 예술의 하나로 접근하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경'은 동양의 문화가 그대로 담겨있는 경전인 것입니다.





사경의 아름다움은 깊은 명상과 집중

‘사경을 하는 법은, 닳나무 뿌리에 향수를 뿌려 생장시킨 닳나무가 다 자라면 연후에는 닳 껍질을 벗기는 자, 연마하는 자, 종이를 만드는 자, 사경을 하는 자, 표지와 변상도를 그리는 자, 표구를 하는 자, 심부름을 하는 자 모두 불계를 받아야 하며 제식(음식을 청결히 가려 먹음)해야 하며, 위의 사람들이 만약 대소변을 보거나 누워 자거나 음식을 먹거나 했을 때에는 향수로 목욕을 한 연후라야 사경하는 곳에 나갈 수 있다’

- 신라 백지묵서 <대방광불화엄경> 사성기

이렇듯 옛날 신라시대 때만 하더라도 사경에는 제약이 많았다. 그 제약들을 극복해 낼 수 있어야만 사경의 고귀함이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당시 사경은 분명 부처와 다르지 않았다.

지금에 와서 사경의 가치가 다시 부각되고 있는 것은 현대화된 삶에서 오래된 가치들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국사경연구회는 사람들에게 사경의 효과에 대해서도 홍보한다. 붓으로 한자 한자 정성을 다해 심혈을 기울여 쓰는 과정에서 휴식과,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사경이 수행 방법의 하나로 활용되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경의 종류도 수행의 방법에 따라 달라 종이에 한정되지 않고, 돌이나, 금박 등으로 다양하다.

다양한 사경전시회로 국내 사경 우수성 알릴 것

최근 사경이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보다는 해외에서 먼저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그 섬세한 붓 터치와 정교

TIP 한국사경연구회는

2002년 처음 문을 열고, 본격적인 사경연구와 학술발표를 시작했다. 한국사경연구회에서는 크게 사경을 홍보하고, 고려사경을 연구해 현대에 맞게 새롭게 창조하는 일을 진행한다.

초기에는 ‘사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알리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는 많은 분들이 사경의 가치를 알고, 배우고자 하고 있다고. 사경은 그 자체로도 아름다운 예술품이지만, 그 과정이 수행의 과정과 닮아있다. 현재 한국사경연구회의 회원은 400여명으로 미술사연구자, 문화재관리자, 스님, 작가, 일반인 등 전 분야에 걸쳐있고, 또 각기 다른 관점으로 ‘사경’이라는 분야를 풍부하게 하고 있다.

한 짜임들에 모두들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것이다. 한국사경연구회는 아시아 불교 국가에서 쇄도하는 초청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가까이 중국 명주국제상무항에서 열리는 ‘한국사경연구회 회원 초청 전시’ 서부터 시작해서, 태산 옥황정, 중국 4대 명사인 영암사에서 전시회들이 준비되어 있다. 이들이 ‘사경’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사경 봉안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인쇄가 가지지 못한 어떤 신묘한 정신이 글자 사이사이에 스며들어 있다고 믿고 있다.

앞으로 한국사경연구회는 세계 각국의 ‘사경’들을 모아 전시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현재 각국과 협의중이며, 가까운 시일에 유럽의 ‘성경’, 중동의 ‘코란’, 그리고 아시아의 ‘불경’ 등 손으로 쓰인 작품들을 한자리에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경상 기자 sang@print.or.kr

김경호 회장의 사경작품들

